

<속기록 초안>

안녕하세요?

통일부는 이번 주에 남북경협기업 등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진행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내일 6월 1일 오후 4시 집무실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면담하고, 6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이증명 대한골프협회회장 겸 아난티그룹 회장을 면담합니다.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 사업자이며, 아난티그룹은 금강산 골프장 건설 등을 통해 관광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남북경협기업, 인도협력단체 등 민간협력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번 면담도 이러한 소통 노력의 일환이자,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진전시켜나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는 등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 두 일정은 모두 모두발언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일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이를 토대로 한 남북관계 발전 구상을 국민께 직접 설명드리고, 공감과 지지를 넓혀가기 위한 일정들도 진행을 합니다.

먼저 장관은 제주도를 방문해서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제주지역 2030세대와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제주도

도의원들과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제주지역 통일 및 남북관계 유관단체 대표들과 대북정책간담회를 갖습니다.

제주지역 2030세대와의 대화는 통일부 유튜브 UNI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대북정책간담회 등은 현지에서 모두발언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관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추진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과 특강도 진행을 합니다. 먼저 장관은 6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공주대에서 강연하고 6월 4일 오후 4시 30분에는 송실평화통일포럼에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6월 4일 금요일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강연을 하는 일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부는 평화통일 비전시민대와 전국시민회의와 함께 6월 5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국민, 통일국민협약도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통일국민협약 관련 대화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그 실현방안을 주제로 합니다.

이번 행사는 6월 5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6월 12일과 13일, 6월 26일로 나누어 진행이 되고요. 국민참여단 1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장관도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리는 개최식에 참여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주요일정들을 말씀드리고 다른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남북경협 의견 수렴 관련해서 혹시 이게 지난주 5.24 조치 해제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한 후속조치인지 궁금하고요.

오늘 오전 미사일지침 종료에 대한 북한이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면담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경협기업이나 인도협력단체 등 민간협력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데 따른 그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남북경협을 해왔던 여러 단체나 기업 등을 계속 만나왔고요. 이번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했던 현대그룹과 아난티그룹 등을 만나서 관련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질문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행사와 특별히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민간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여러 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협의해오는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중앙통신 보도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서명서를 낸 김명철이 누구인지는 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명의의 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식 직위나 직함에 따라서 발표된 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의,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장관의 6월 말 방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실상 논평원 발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입장인 거예요? 추가적으로 평가, 이번 논평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정부가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다들 질문 주신 것처럼 개인명의의 글인 만큼 정부가 직접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첫 ***

<답변> 북한 매체에서 한미정상회담 성과 등을 평가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명의로의 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 직접 논평하기보다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 등은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 공식담화 형태가 아니라 개인명의로 입장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통일부가 따로 분석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논평 외에도 북한 상황의 특이동향이나 이런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모니터링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이 논평을 발표한 형식만을 가지고 정부가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대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식에는 공식기관의 성명이나 담화에서부터 오늘 나온 것처럼 개인명의로의 글까지 다양한 수위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오늘 나온 글이 그 반응의 형식 등으로 볼 때 발표의 형식 등으로 볼 때는 수위가 낮다는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이 반응 한 가지 그리고 또 발표형식 이런 것만 가지고 어떤 입장이나 논평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북한의 반응을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도 신중한 입장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금강산 관광이 재개된다는 가능성이 면담을 통해서 생기는 건지 궁금하고요. 통일부 장관께서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2030세대와 소통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남북은 2018년 평양공동선언 등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남북정상선언의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도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계기에 이런 입장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여건을 보면서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또 이번 면담도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직접 진행해왔던 여러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과의 소통 노력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번 면담 자체가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협력 주체들과 계속 소통해온 그런 소통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고, 최근 한미정상회담 성과 등 전반적인 정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민간사업자 등의 의견도 듣기 위한 자리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30세대와의 대화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정도 몇 차례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충주지역에서도 일일 통일교사 활동을 하신 이후에 충주지역 2030세대와의 대화를 가지셨던 계기도 있고요. 제주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 관련된 행사나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 반복된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논평 내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설레발 역겹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특별히 평가하실 게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명의로 발표된 글입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에서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개인명의로 이런 식으로 반응한 과거 사례, 유사 사례 같은 게 있으면 몇 가지만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미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 형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개인명의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대외관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 입장을 표명할 때 개인명의로의 논평이라는 형식을 사용한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 일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하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제 같은 게 나온 것

이 없는지 궁금하고, 이인영 장관께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금 국회 비준을 추진할 적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통일부가 진행하는 상황이 있거나 6월 국회 안에 통과할 거라는 어떤 타임라인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면담은 계속 저희도 반복하는 답변을 드리게 되는데요. 꼭 현대그룹만이 아니라 그동안에도 남북경협기업이나 인도협력단체들과 수시로 이런 기회를 가져왔던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소통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의제를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진행해왔던 사업자인 만큼 금강산 관광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 같이 발전시켜나가거나 협의해야 될 부분 등을 논의하는,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판문점 선언 등 남북정상 합의 그리고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재정소요 추계라든지 하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부검토와 준비는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국회비준 동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라든지 그리고 국회 차원의 논의 동향, 국민적 합의과정 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여건 등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유관부처와의 협의, 국회와의 논의 등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6일 이후로 계속 공개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특이동향이 있거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월 6일에 군인 가족 예술소조 공연 참가자 기념사진 촬영 보도가 있었던 이후에 오늘로 24일째(※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25일째' → '24일째'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활동 보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만 기준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공개활동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은 사례이기는 합니다.

다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공개활동과 관련해서 공개활동 미보도기간만을 가지고 어떤 동향을 평가하거나 또는 정부가 미보도 사유에 대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